

이등병 계급장 달아주며 눈시울 붉혀

육군 제22사단 신병교육대 13년만에 훈련병 면회 행사... 전국에서 500여명 찾아

신병교육대 면회 제도가 13년만에 부활한 가운데, 지난 5일 고성군 주둔 육군 제22사단에서도 500여명의 가족과 친지가 참석한 가운데 11-8기 훈련병 265명에 대한 면회가 이뤄졌다.

이날 행사는 강당에서 5주간의 훈련 모습을 담은 동영상 상영하고, 오전 10시30분부터 연병장에서 수료식이 시작돼 수료자 신고, 계급장 수여, 교육우수자 상장 수여, 소감문 발표, 사단가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계급장 수여식에서는 대표 훈련병에게 사단장과 부모가 직접 계급장을 수여하고, 나머지 훈련병은 가족 및 친지들이 달아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훈련병과 가족들이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가족이 참석하지 못한 훈련병들에게는 중대장

과 소대장, 조교들이 계급장을 달아줬다.

조성직 사단장은 "사랑하는 아들을 군에 보내고 먼 길을 찾아온 부모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정든 부모의 품을 떠나 5주간의 훈련을 통해 전우애를 터득하고 율곡전사가 된 아들들이 있어 조국이 안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료식을 마친 훈련병들은 부대에서 마련한 강당과 야외전막, 잔디밭 등에서 부모 및 친지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면회를 하지 못한 훈련병들은 중대장과 소대장, 조교들과 함께 부대에서 준비한 삼겹살과 점심을 들고, 가족과의 전화통화로 아쉬움을 달랬다.

이날 신병교육대 위병소를 통과한 차량수는 150여대였으며,



지난 5일 열린 22사단 신병교육대 면회 행사에서 대표 훈련병에게 조성직 사단장과 부모가 직접 계급장을 수여하고 있다.

면회객들은 대략 500여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육군 22사단은 "이번 수료식

은 어린이 날에 열려 많은 부모님들이 참석했다"며 "면회를 통해 신병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신교대 면회 부활 주민반응

지역경제 활성화 '가우똥'

"면회객과 함께 고성군 관내 외출 허용하면 큰 도움"

고성군 주둔 육군 22사단이 지난 5일 국방부의 방침에 따라 신병교육대 면회제도를 부활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병들의 외출 허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출산

율 저하로 입영자 가운데 70% 가량이 독자여서 부모들의 면회 요청 목소리가 높고, 군부대가 있는 지자체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5월부터 신병교육대 면회제도를 부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육군22사단은 지난 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면회를 통해 신병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5일 전국에서 500여명의 면회객들이 22사단 신병교육대를 찾았지만, 인근 지

역 주민들은 면회객들로 인해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군부대 장병들의 토·일요일 외출로 인해 음식점이나 상가들이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병교육대 면회객들은 대부분 무박으로 오

고 차량에 음식을 모두 준비해오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신병교육대 인근인 토성면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김태극씨는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려면 면회객들이 신병들과 함께 일정 시간 동안 외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외출 구역은 고성군 관내로 제한하고, 부모가 없는 경우는 교육대 장교들이 함께 외출을 해준다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간성우체국 FC(보험설계사) 大모집

"고객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선진우정기업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보세요"

- ◇자 격 : 중졸 이상(남·여)
- ◇주요업무 : 우체국보험 모집(부업, 겸업 가능)
- ◇구비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주민등록등본
- ◇보 장 : 수당 및 급여 50만원~무한대
- ※보험 모집에 필요한 고객사은품을 지원합니다



간성우체국 681-1110, 2220